

# 광주서 촬영한 12·12 영화

## 서울의 봄



‘서울의 봄’ 스틸컷

조선대 본관 1층·정문계단 등서 촬영 본관 뒤편 대피소 ‘B2 벙커’도 활용 황정민·정우성 등 열연...22일 개봉

이뤄 시대극 등에 활용돼 왔다. “12·12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와 연계된 영화를 우리 학교에서 촬영했다고 하니 신기해요. 개봉하면 영화를 꼭 관람할 생각이예요.”

최근 조선대 본관에서 마주친 새내기 장진혁(특수교육학과) 학생의 말이다. 이번 영화는 교내 커뮤니티 등에서 본관 촬영 소식이 퍼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역사적 사건을 ‘영화’로 현재화한다는 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것이다.

본관 뒤편 대피소(B2 벙커)도 실제 영화 촬영 장소로 활용됐다. 촬영 당시에는 ‘육군본부’ 마크와 ‘제한구역’ 표지가 부착돼 있어 군부대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한다. 현재는 대학 측이 비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 중이었지만, 그곳에는 아직까지 배우들의 땀과 열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김승준(20·스포츠산업학과) 학생은 “새내기라서 친구 따라 우연히 본관에 처음 와봤는데 12·12사태를 다룬 영화를 이곳에서 촬영했다는 소식을 듣고 역사적 아픔에 대해 생각해보 수 있었다”며 “본관의 복도나 내외부의 공간에 지나온 현대사의 흔적들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 남다른 의미가 다가왔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학교 내에서 영화 ‘서울의 봄’을 비롯해 웹드라마 ‘이두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등을 꾸준히 촬영해 왔다”며 “다



영화 속에서 황정민, 정우성이 스쳐 지나가던 ‘제한구역’. 조선대 본관 1층의 긴 복도에서 촬영했다.



조선대 본관 뒤편 대피소 B2벙커(촬영 당시 연출 컷). 현재는 비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 중이다. <조선대 제공>

양한 장르, 현대극 등에 친근한 캠퍼스가 등장하면서 지역 대학의 인지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제33회 배동신 어등미술제’ 대상 회화 오한슬·문인화 오혜경 작가

서예 부문 최준택 수상



오한슬 작 ‘Origin 기원’

광산문화원이 주관하는 ‘제33회 배동신 어등미술제’ 대상(문체부장관상)에 회화 부문 오한슬 작가가 선정됐다. 어등 대상 문인화 부문에는 오혜경 작가, 서예 부문 최준택 작가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상금은 각각 300만원.

광산문화원(원장 오동근)은 ‘제33회 배동신 어등미술제’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16일 오전 10시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동신 어등미술제는 지역 출신 세계적인 수채화 화가 배동신을 기념하고, 미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가 주최하며 광산문화원이 주관했으며, 지난 10월 공모전을 통해 회화, 서예·문인화 부문 작품 총 399점을 접수 받았다.

이 가운데 대상 3점을 비롯해 최우수상 3점, 우수상 14점, 특별상 10점, 특선 58점, 입선 137점 등 총 225점을 선정했다. 전시는 시상식날인 16일부터 오는 22

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부인 김미영), 광산구의회 윤혜영 부의장과 광산구의회 의원, 광산장학재단 강박원 이사장 그리고 광산문화원 임원, 정인서 서구문화원장, 문재평 심사위원장, 수상자와 가족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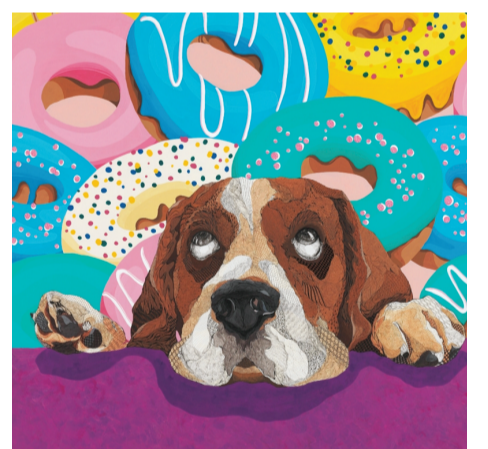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동물과 인간이 ‘함께-삶·행복·공존’

이진상 개인전, 26일까지 갤러리S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100만 명에 달하는 시대다. 그만큼 반려동물은 많은 이들에게 ‘가족’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오늘의 사회를 규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피로사회’다. 그만큼 사회 각 분야의 피로도가 높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 반려동물은 그런 피로감 높은 사회적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다이어트’

이진상 화가는 동물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을 꿈꾼다. 그는 “나의 삶의 반 이상을 그들과 함께 했으며 그들과 공존하는 삶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에게 개를 포함한 반려동물은 아무 조건 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진상 화가의 개인전 ‘함께-삶·행복·공존’이 갤러리S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13일 개막해 오는 26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인간에게 친숙한 반려동물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 전시에는 모두 9점이 출품됐으며 개를 비롯해 토끼, 양 등을 소재로 했다. 다양한 작품들 가운데 ‘셀카’라는 그림은 미소를 짓게 한다. 개와 닭, 토끼 등이 한데 모여 카메라에 자신들의 모습을 찍은 장면을 초점화했다. 아마 이들 동물들이 셀카를 찍으면 이런 모습일

거리는 생각이 든다. ‘다이어트’라는 작품은 오래 굶은 탓에 힘이 빠진 개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풀이 죽은 얼굴 너머로 맛있는 음식을 떠올리는 개의 표정은 다이어트를 할 때 들여다보는 인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한편 이 작가는 “반려동물을 그리는 작업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외로움과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그들은 어느새 내 삶으로 스며들어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존재가 됐다”고 의미를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보컬·랩·댄스 꿈나무들 등용문... 프로젝트 ‘라이징 스타’

전남문화재단, 20일까지 예선 27일 본선...배운정·치타 등 심사



심사위원 배운정(왼쪽부터), 이슬림, 치타. <전남문화재단 제공>

정, 언프리티 랩스타 시즌2 심사위원이자 프로듀스 101 랩 트레이너 등을 역임한 래퍼 치타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슬림(SL 스튜디오 대표), 성스런(Divers city 대표), 케이팝 대중문화 평론가 김

윤하가 심사를 맡는다. 2007년생 이후 출생자면 신청할 수 있으며, 총 15개 팀을 선발해 본선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본선 수상자에게는 1년간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진출을 위해 지원해주는 특전도 제공된다.

이와 맞물려 현장 오디션도 진행된다. 피네이션, 카카오펀터테인먼트, 어트랙트, 큐브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8개사가 오는 28-29일 여수 엑스포를 대형 오디션장에서 개별 오디션, 성장 상담 부스 등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문화재단 관계자는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차세대 예술인재 선발 및 육성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오디션이 전남도의 뮤직, 댄스 분야 예술 꿈나무들이 끼를 펼치는 등용문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관광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MODERN

사무실 광주서복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